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미후왕처럼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③ 돌원숭이, 원숭이 왕이 되다

원숭이들 개울에서 맥감으며 놀다가 갑자기 개울물의 근원에 호기심을 느꼈네. 찾아 찾아 올라가 보니 바위에서 큰 물이 솟아 올라 폭포되어 떨어지는 곳까지... 그 폭포의 장관, 한 시인은 이렇게 그렸도다. "물줄기 곧바로 삼천척을 날아 내리니 (飛流直下三千尺) 은하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가(疑是銀河落九天)"

이 물은 어디로 뚫혔을까?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 우리들 왕으로 모시자! 시골 외곽 원숭이들 뜻을 모았네. 그 때까지 그저 평범한 돌원숭이였던 손오공 저두 속에 들어간 송곳이 밖으로 날카로운 몸체를 드러내듯 용감하게 폭포 속으로 뛰어 들었다. 원래 출생이 특이한 비보통(非普通) 원숭이였지. 큰 일을 맞으니 비로소 그 영웅본색 드러난다.

눈 감고 퐁당 뛰어든 폭포 속 폭포가 주렁처럼 앞을 가린 그 속 먼 세상이 열려 있구나. 푸른 소나무에 매화 꽃 향기 그윽한 곳 '화과산의 복된 곳, 폭포로 주렁을 드리운 골짜기(花果山福地水簾洞)' 라는 글까지 돌 벽에 새겨져 있구나. "만 세상에 있구나. 인간 세상이 아닐세(別有天地非人間)" 로다.

돌아나온 돌원숭이에게서 이 소식 들은 원숭이 무리, 약속대로 돌원숭이를 왕으로 모셨다. 그 이름도 위대한 '훌륭한 원숭이 왕(美?王) 으로... 이! 돌원숭이 손오공 드디어 출세했구나. 왕 노릇 하는 재미는 얼마나 좋을까?

서유기는 엄정 긴 이야기입니다. 그걸 모두 따라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너무 지루하게 됩니다. 자연 좀 건너 뛰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건너 뛴진도 못 따라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일단 처음 몇 주는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유기의 분위기에 좀 익숙해지면 조금 속도를 내기로 하지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손오공이 원숭이 왕이 되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해서 원숭이 왕이 되는지는 앞의 시를 읽어 보시면 알겠지요? 중간에 있는 한자 시구는 이태백이라는 인간 시인이 읊은 시입니다. (廬山瀑布 여산의 폭포를

읊음·山中答俗人 산중에서 속인의 물음에 답하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원숭이들은 호기심이 많다 하죠? 그 호기심이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흠이지만. "호기심은 모든 발견의 아버지다"라고 누가 말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어떤 일이나 사물의 근원을 찾는 호기심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의 이 대견한 원숭이들은 개울물의 근원을 찾아 결국 수렴동을 발견하는 큰 성과를 이루는군요. 그 발견의 과정에서 우리 돌원숭이가 결국 그 비범함을 드러내게 되구요. 얼마나 놀라운 돌원숭이 인가요? 남들이 모두 궁금해 하면서도 우물쭈물하는 일에 몸을 던지는 그 용기! 대중의 열망을 짊어지고 거센 폭포로 뛰어드는 우리 돌원숭이의 모습을 그려 보세요. 조그만 몸통이지만 결코 작을 수 없는 큰 모습이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제가 이렇게 좀 깊게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의 소위 지도자들이라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대한 실망과 분노가 크기 때문인 것도 같네요. 옛날에는 어렸는 지 모르지만, 요즈음의 지도자라 하는 분들, 정말 염증이 나게 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가 정치인들 아닐까 싶군요. 오죽하면 이런 우스개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모기가 배탈이 났습니다. 다른 모기들이 "어디서 먹고 왔니?"라고 묻자, 배탈난 모기가 "국회 식당에서 먹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다른 모기들이 "어! 거긴 손 불랑식품만 모여 있는 거 몰라? 배탈 나는 게 당연하지!"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한번은 썰렁하게 웃을 수 있지만, 다시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대표로 뽑은 우리 자신이 좀 처량해지는 우스개입니다. 자신은 바르지 않으면서 남을 바르게 이끌겠다는 이상한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정치인 가운데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그런 사람을 대표로 뽑은 우리 자신들에 대한 반성해야 되겠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용감한 돌원숭이를 약속대로 왕으로 모신 원숭이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마 우리나라 상황 같았으면 온갖 유언비어 조작하고 음모를 꾸며서 뒤통수 때리느라 한바탕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말이요. 왕으로 모시기로 한 것이 분명하고, 또 돌원숭이가 용감하게 뛰어들어 수렴동을 발견한 것도 명백한데 어떻게 뒤통수를 때리느냐고요? 순진하라. 저도 순진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뒤통수를 치는지는 하도 많이 봐서 잘 압니다. 한번 가장적으로 우리 돌원숭이 뒤통수 치는 방법을 만들어 볼까요?

1. 저 돌원숭이는 출신성분이 불분명하다. 돌에서 나왔다는 설이 가장 믿음만 한데, 그렇다면 머리도 돌대개리일 것이 틀림없다.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는



그림·최주현

솔선수범·자기희생으로 수렴동 발견 돌원숭이 공적 인정해 왕으로 추대

"어렵고 생소한 일을 나서서 하라"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인지 보여줘

말도 있지 않으나, 폭포로 뛰어든 것도 용기가 아니라 무식해서 그 위험을 모른 것일 뿐이다. 또 폭포를 쉽게 뚫고 들어간 것도 출신이 돌이어서 그 무게 때문에 잘 가라앉은 것일 뿐이다. 우리가 예를 왕으로 모신다면 결국 그 출신이 돌이라는 점을 높이 인정하는 것이 된다. 어찌 똑똑하고 영민하고 신중하고 사려깊은 우리 원숭이들이 단지 돌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공을 세운 자를 왕으로 모신단 말이나!

2. 돌원숭이가 수렴동을 발견하여 왕이 되려 한 것은 사전에 계획되고 조작된 음모이다. 돌원숭이는 돌 출신이니 물에 들어가면 잘 가라앉는다더라. 예전에 유언히 여기까지 와서 수영도 못하는 주제에 까불다가 폭포 속으로 가라앉아서 수렴동을 발견했다던가? 그러곤 슬그머니 개울물의 근원을 찾아보고자 우리들을 선동했고, 또 그 속을 뚫고 들어갔다 나오면 왕을 시키자고 선동했다. 증거? 개울의 근원을 찾아보고자 먼저 출렁던 놈들, 그놈들이 개하고 구석에서 수근거리는 것을 본 애들이 있다. 또 그놈들

이 폭포 들어갔다 온 원숭이를 왕 시키자고 맨 먼저 소리친 것을 본, 분명하고도 뚜렷하고도 확실한 많은 목격자들이, 줄줄이 여기저기 방방곡곡에 수도 없이 널려 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저 돌원숭이가 왕이 되려고 사전에 치밀하게 조작한 일이다. 수렴동 발견한 것은 관습은 일이나, 조작한 죄는 용서한다 치자. 그러나 절대 왕 시키는 것은 안된다. 그저 상급 몇푼 쥐어주면 될 일에 왕을 시키다니 말이 되는가? 왕 선출은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 퍼뜨리고, 그걸 삼대 원숭이 일간지라는 동후(東後)일보, 조성(朝猩)일보, 중원(中猿)일보 등에 슬슬 흘리려 댈니다.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 수도 없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나 봐. 아마도 꼼꼼히 생각하면 그런 근거없는 유언비어나 중상모략에 나도 모르게 춤을 춘 적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색깔이 좀 빨강다는 식의 색깔 뒤집어씌우기 같은 것은 유언비어, 중상모략의 방식에서 아주 단골 메뉴죠. 그런 이상한 소문에 흘리면 그 다음부터 제대로 보이는 것이 없게 됩니다.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하는 식으로 왜곡되기 마련이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근거없는 소문에 흘려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이나 사건을 본 적이 없는가. 아마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 모두 다 그런 잘못을 한 두번은 법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악성의 유언비어, 중상모략이 극성을 부리게 만든 공범자라

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돌원숭이가 왕 되는 대목은 지도자의 자질과 기풍, 또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하네요. 시대와 대중의 요청을 그 한 몸에 짊어지고 과감한 결단으로 앞장을 서는 사람, 또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처음으로 가는 용기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 아닐까요? 처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저는 가끔가다 "누가 해삼을 처음으로 입에 넣을 생각을 했을까"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적도 있어요. 제가 처음 해삼을 봤을 때 엄청 놀랐거든요. 징그러워 보였습니다. 물론 해삼은 맛있는 식재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해삼을, 먹는 사람 아무도 없는 데 처음 입에 넣고 맛을 본 사람도 정말 용기있는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처음이라는 점에서는. 그리고 작은 사건도 아니죠. 그 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삼의 덕을 보았겠어요? 식품으로, 약으로도.

지도자, 그리고 처음하는 것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평소에는 혼자 잘난 척, 혼자 깨끗한 척하다가 정작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꼬리를 말고, 숨죽이고 있다고 문제 잘 해결되면 와르르 뛰어 나와 다 내가 한 일이라고 하는 사이비 지도자가 즐비한 세상. 그런 세상에 대해 엄하게 한번 호통을 쳐 본다는 것이 물 간 해삼처럼 흐물흐물하게 되어 버리고 말았군요.

진정한 공적으로 왕이 된 돌원숭이 손오공, 왕 노릇도 잘 할지겠? 그 재미는 또 얼마나 좋을까요?

※ 법화경·사경 ※

묘법연화경
할인가 28,000원(5권 이상)
정가 40,000원(1권)

묘법연화경(우리말)
할인가 9,600원(20권 이상)
정가 16,000원(1권)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가 5,000원(1권)

34호~40호 우리말법화경1~7
할인가 2,100원(50권 이상)
정가 3,500원(1권)

묘법연화경사경공책 (주몽생산)
정가 5,000원(1권)
※간만 그어져 있는 공책입니다

※ 경전사경·사경지 ※

1호 반야심경(한문)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2호 금강경(한문)
정가 5,000원(1권)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 내 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 표 지 : 레자크지 울셋 4"
- 제 본 : 한정본 실제본
- 크 기 : 220mm×310mm

반야심경 탐사경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가 200원

금강호신경
1000조 @16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영가웃 B형-남 정가 1,200원

영가웃 B형-여

영가웃 C형-남 정가 1,000원

영가웃 C형-여

수자영가웃 정가 800원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예수재함A (50개 1박스)

동남영가웃 정가 800원

동녀영가웃 정가 1,000원

종이신발(남/여) 1컬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가 1,500원

한지점은 위패(대/중/소)/인쇄점은 위패(대/소)
정가 30,000원 / 30,000원 (100개)
할인가 @250원 / @250원 (1000개이상)

한지·인쇄점은영가웃(남/여)
정가 27,000원 (100원)
할인가 @240원 (1000개이상)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드릭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